

앞서가는 충남여성의 길잡이

충남여성



2005 봄·여름 통권 제22호

Chungnam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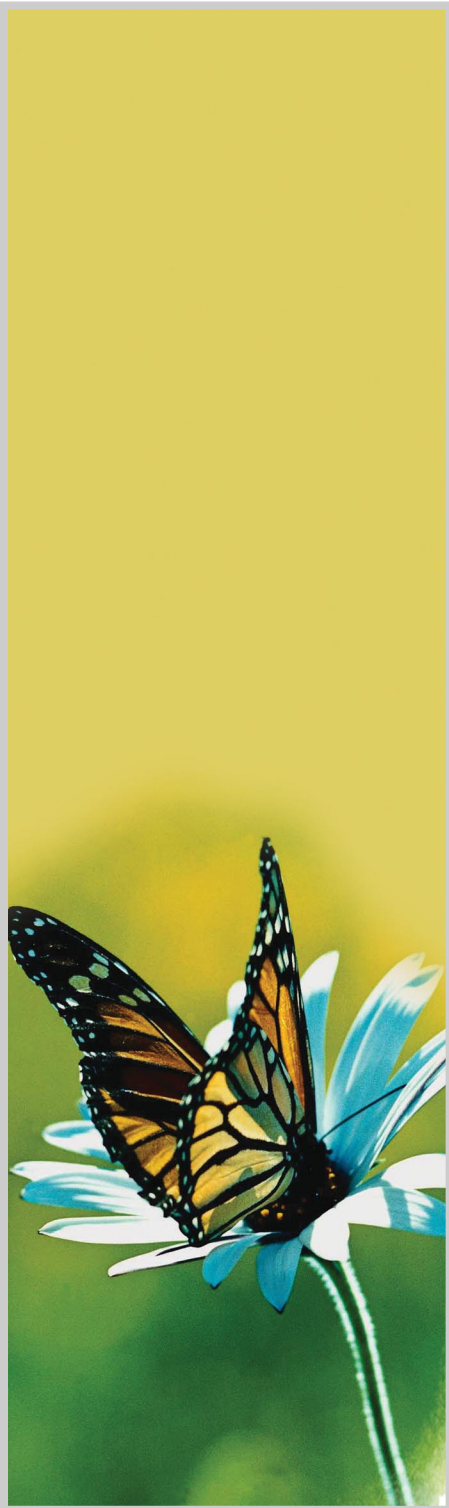
Women's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 02** 1. 2005년 우리는
_ 2005년도 연구사업방향
- 03** 2. 여성가족부 주요사업
_ 장애아 보육료 전액면제
- 05** 3. 정책제안
_ 이혼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방향 모색 / 김종철
- 14** 4. 문화 엿보기
_ 사랑과 경멸 / 임원정규
- 16** 5. 충남지역 여성소모임을 찾아서
_ 보령 '로컬가이드' / 성진모
- 18** 6. 알아봅시다
_ 2005년도 충남하계영어캠프 운영결과
_ 2005년도부터 달라진 여성관련 제도
- 23** 7. 함께하는 생각
_ 나의 삶의 지표 어머니 / 한병래
- 25** 8. 알림
_ 도소식 / 지역소식
- 36** 9. 충남도 10월의 자원봉사왕 / 김혜숙
- 40** 10. 충남여성포럼
_ 제16회 충남여성포럼 토론회 가져
- 41** 11. 함께하는 이야기
_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 42** 12. 개원이후 사업실적



2005년도 연구사업방향

2005년도는 보육사업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보육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원에서는 어린이인성학습원의 유치, 영어캠프의 운영 등 사업 확충에 따른 성공적 전략 및 운영방안을 위한 준비에 차질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성매매 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강화에 따른 대처방안을 연구하며,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강화로 성인지적 여성정책의 행정적 반영을 위한 기반조성의 해로 삼고자 한다.

본원에서는 ① 도와 시군과 연계된 정책개발 연구 (2004년도 연구협력을 위한 시군방문을 계기로 도와 시군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에 치중할 예정임) ② 전략화된 사업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어린이인성학습원, 영어캠프 등 개발원 사업 등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연구 추진) ③ 여성관련 정책의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에 관한 연구 (여성들의 권익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수행) ④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주 (중앙 및 시군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함으로써 연구역량 강화) 등 4가지 주요연구방향을 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충청도 각실과에서 요구하는 정책대안 및 교육에 대한 요구 등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도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충남의 시군을 방문하여 개발원의 소개 및 연구협력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개발원이 16개 시군에 좀 더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보육정보센터의 부설 운영, 어린이인성학습원의 설치, 영어캠프 위탁 운영 등 충청남도의 정책요구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추진중에 있다.

더불어 용역사업 수주활동을 전개하여 보다 많은 용역연구를 수행하여 개발원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금년에는 이재우 원장을 중심으로 도정 및 충남 시군 행정에 직접 반영되고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및 사업에 한층 더 매진하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충청남도 여성 및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및 교육기관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장애아 보육료 전액 면제

대전에 살고 있는 조추란씨는 지체1급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의 엄마로 직장을 다니는 조씨는 취학전 장애아동이 12세까지 무상보육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떻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 애태우고 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관련 정보를 몰라 속을 태운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정부는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장애아동의 사회통합 및 건전한 발달을 위해 보육료를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0-12세까지의 취학전 장애아에 대해 보육료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 아동이지만,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무상보육 지원이 가능하다.

또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 0-2) 및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도 의사의 장애확인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장애진단서유효기간 1년) 이 경우, 보호자 및 보육시설장은 1년마다 장애진단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중증·경증장애를 구분하던 것을 2005년부터 지원 단계를 중증기준으로 일원화해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를 위한 시설도 장애아전담시설 92곳과 장애아통합시설 199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2004년 3월 현재)

또 놀이방 및 일반보육시설도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지원대상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이 가능해 사실상 모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취학장애아의 경우 방과후 보육료도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조씨의 경우 자녀가 취학 전이라면(취학유예 포함), 지체1급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나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받아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지원대상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아전담시설이나 장애아통합시설 및 일반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취학을 한 자녀라면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서를 받아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확인진단서⇒ 읍·면·동사무소 지원대상확인 증명서 발급⇒ 보육시설 제출⇒ 보육료 무상지원

한편, 여성가족부는 장애아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30개씩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며, 올해 장애아 보육료로 9,000명을 대상으로 14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아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장애아 보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예정이며,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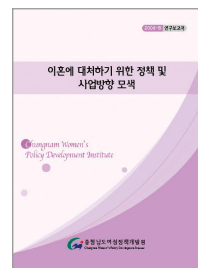


문의 : 거주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및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출처 : 여성가족부

이혼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방향 모색

연구자 : 정책연구실 김종철 연구팀장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략 5000만 명으로 어림셈하여 계산해 보면 매년 30만 명 정도가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혼 가족 당 자녀수를 1.2명으로 추산해 보면 매년 17만 명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혼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혼 부부의 부모를 평균 2명 정도로 계산한다면 매년 30만 명 정도의 부모들이 자녀의 이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매년 대략 77만명 정도가 이혼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2002년도 이혼 건수가 5074건으로 나타나 대략 1만명 정도가 이혼하고, 6천 명 정도의 자녀가 이혼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1만 명 정도의 부모가 자녀의 이혼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이혼의 증가로 인해 대두되는 이슈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이혼으로 인해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해체되는 경향이 있음
- 이혼으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적 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이혼 시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이혼 부부 당사자들의 입장에 치중한 나머지 이혼가정 자녀들의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음
- 이혼 자체를 서두른 나머지 이혼 시에 경제문제, 자녀 양육문제, 이혼 후 대책에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충남여성의 이혼에 대한 가치관, 이혼의 원인, 이혼 시의 주된 이슈에 대하여 정리함
- 외국의 이혼 현황 및 이혼 제도에 대하여 살펴봄
- 이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이혼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정책방안들을 모색함
- 가정의 기능(가정의 민주화, 양성평등 및 가족 간 관계 증진 등)을 활성화하거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인터뷰 및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자로는 충남 16개 시군별 기혼여성(유배우, 무배우), 이혼여성 전체 480명으로 하였다. 또한 충남지역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 약 7명과 6월 중에 전화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설문지 조사기간은 2004년 7월 1일 - 7월 10일(설문지 도착기일은 7월 13일까지)까지 조사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선별기준은 기혼과 이혼을 기준으로 하면 시군별로 기혼자(20-25명 내외), 이혼자(5-10명 내외),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20대, 30대, 40대, 50대 별로 각각 5-9명을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3. 연구결과 정책제언

가. 폭력 행사자 신고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실시, 보급

• 취지 및 배경

-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의 이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이혼을 결심하겠다 50.7%, '2-3번 정도 반복되면 이혼을 결심하겠다'가 20.2%, '강제로라도 폭력행위 치료를 받게 했으면 좋겠다'가 18.4%, '법적인 고발조치를 하고 싶다'가 8.3%, '그냥 참고 산다'가 2.4%로 나타나 남편의 폭력에 장기적으로 관용적일 수 있는 여성들이 거의 없음
- 폭력행사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폭력행위 혹은 알콜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령에 의한 전체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가 44.6%, '필요하다'가 43.8%로 나타나 8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가 8.1%, '전혀 필요없다'를 합한 비율이 3.5%로 폭력행사자 강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음

• 추진방법

- 경찰청과 연계하여 신고 접수된 사람을 강제 소환하되, 법이 제정되어 집행되기 전까지는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기회비용(1일 7-10만원)을 지급함(1안)
- 신고 접수된 경우에 상담자 및 경찰, 관계자들이 함께 출두하여 본 프로그램의 취지 및 기회비용 지급(1일 7-10만원) 등을 설명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2안)
-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상담소 상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교육 또한 함께 실시함

나. 가사역할 및 자녀교육 분담 프로그램의 개발, 실시, 보급

• 취지 및 배경

-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이나 민주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가정이 형성될 수 있으나 그러한 거대한 의미부여 프로그램 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사역할 분담이나 자녀교육 분담과 같이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표Ⅵ-1〉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된 내용	필요성
가정변화 추진 프로그램	75.6
가족회의 및 가정규범 제정 프로그램	69.7
가족의 비전과 목표설정 프로그램	76.3
양성평등한 가정문화 형성 프로그램	78.7
가사역할 분담 추진 프로그램	82.9
자녀교육 분담지도 프로그램	82.6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혹은 세제혜택 부여	69.5
호주제 폐지	59.0

• 추진방법

-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지역사회 대학교 관련 학과 및 연구소나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1안)
- 중앙에서 개발하여 지방 단위로 확산 보급함(2안)

다. 부모역할 증진 및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보급

• 취지 및 배경

- 남성이 가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필요하다' 54.2%, '매우 필요하다' 35.1%로 나타나 8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인생의 중년기에서 삶의 좌표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년 인생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필요하다' 63.3%, '매우 필요하다' 23.4%로 나타나 86.7%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책제안

• 추진방법

- 자녀 출산전, 유아기 혹은 아동기 부모로서의 역할, 청소년기 부모로서의 역할 등 자녀와의 관계에 따른 범주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함(1안)
- 농업인으로서의 아버지, 공무원으로서의 아버지, 직장인으로서의 아버지 등 구체적인 아버지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2안)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주축이 되고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교육원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

라. 부부재산 계약제도의 도입

• 취지 및 배경

- 이혼 시 가장 큰 이슈와 관심사는 경제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확고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혼을 신청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필요하다'가 56.5%, '매우 필요하다'가 35.1%로 나타나 91.6%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추진방법

- 이혼 시에 부부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강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함

마. 부부재산 분할법의 제정

• 취지 및 배경

- 대만 등에서는 이혼 시 부부 재산 분할을 법으로 제정하여 이혼으로 인하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이혼 시 부부간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도록 되어 있음
- 이혼을 신청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필요하다'가 56.5%, '매우 필요하다'가 35.1%로 나타나 91.6%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추진방법

- 이혼 시에 부부간 분할해야 할 재산의 내역 및 분할 방법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함
- 재산 분할 시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혹은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의 대상으로 하며,

여성이 가사 일에만 전념하였을 경우에는 최소한 재산의 30% 이상을 분할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바. 선택적 이혼 숙려제도

• 취지 및 배경

- 이혼에 합의한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신청 즉시 이혼이 성립되도록 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필요하다'가 54.8%, '매우 필요하다'가 29.3%로 나타나 84.1%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혼숙려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혼 숙려제도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이혼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며, 특히,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청구 시에는 이혼 숙려제도가 폭력의 위험을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여김

• 추진방법

- 이혼숙려제도를 거처야만 이혼이 가능한 경우와 이혼 숙려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법제화 하여 이혼 숙려제도의 장점을 반영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채택함

사. 자녀양육 및 면접교섭권 비인정자에 대한 부모권리 보호법 제정

• 취지 및 배경

- 이혼을 할 경우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자녀를 키우고 싶어도 자녀양육권을 가질 수 없고, 면접교섭권마저 배제되거나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은 부모임
- 이렇게 자녀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원하지만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추진방법

- 자녀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원활히 집행되지 않는 경우에 간접적으로나마 자녀의 성장발달 모습을 보거나 자녀에 대한 관심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함

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법률 제정 혹은 합의서 제출

• 취지 및 배경

- 이혼을 할 경우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이혼가정의 어린 자녀라는 의견이 91.0%로 높게 나타났음

* 정책제안

- 이혼을 신청할 때 친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혼 후 자녀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가 62.2%, '필요하다'가 31.5%로 나타나 93.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혼을 신청할 때 이혼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자녀양육비 지급액과 지급방식, 자녀 양육 책임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가 53.0%, '필요하다'가 41.1%로 나타나 9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추진방법
- 이혼 시의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등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1안)
 - 이혼 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서 제출토록 하는 법률 제정(2안)

자. 가정법원 종사자의 전문성과 소명감 제고

• 취지 및 배경

- 이혼을 하는 당사자가 이혼과 관련된 문제나 고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하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도 이혼소송을 중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담당 법관의 전문성과 소명감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방법

- 가정법원 담당 종사자의 전문성과 소명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기간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해외유학, 연수, 시찰, 재교육, 가정편화 모색을 위한 세미나 참석, 가정 상담 및 봉사단체와의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함

차. 다양한 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 및 지도지침 개발 및 보급

• 취지 및 배경

- 양부모와 자녀를 기반으로 하는 가정을 일반적인 가정으로 간주하고 교육할 경우 그 외의 가정 형태의 자녀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됨
- 장애우 가정, 1-3세대 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에게는 특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따른 아동에 대한 교육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법

-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1안)
- 초·중·고등학교에 까지 확대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2안)
- 가족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우 가정, 1-3세대 가정, 이혼 가정 등에 한정된 지원 사업 개발 및 시행(3안)

타. 외국인 귀화 여성 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취지 및 배경

- 충남에는 연변, 필리핀 등 외국에서 들어와 결혼하여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음
- 외국인여성들은 대개 20대인 반면에 이들과 결혼한 농민들은 30-40대 이므로 세대간 차이가 심하고, 서로 다른 나라의 생활문화의 차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갈등과 폭력 그리고 이혼 등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외국인 여성을 돈 주고 사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함

• 추진방법

- 외국인 여성 쉼터의 기본적인 모형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외국인 여성 쉼터의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함
-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파. (이혼)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의 활성화

• 취지 및 배경

- 2002년 우리나라의 이혼율(연간 이혼건수/연간 결혼건수)은 47%로서 이러한 이혼율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결혼한 모든 사람들 중 47%는 언젠가는 이혼하게 될 날이 오게 됨
- 충청남도의 경우는 2002년도 이혼 건수가 5074건으로 나타나 대략 1만 명 정도가 이혼하고, 6천명 정도의 자녀가 이혼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1만 명 정도의 부모가 자녀의 이혼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혼 위기에 처한 가정이 이혼까지 이르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활동과 더불어서 이혼 후에 오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함

• 추진방법

-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함(1안)
- 위기가정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운영함(2안)
- 위기가정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기가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3안)

4. 결 론

급속한 산업 및 문화의 발전과 변화 속에서 가정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가족구조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의 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혼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태세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혼 당사자들과 이혼가정 구성원 특히 자녀들은 이혼으로 인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이혼 자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삶이 파탄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법적인 제도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혼을 예방하거나 이혼 후의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우주에 버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아이들의 고통은 그 누구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해결해주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혼의 법적 장치나 이혼예방 혹은 이혼 이후의 대처 방안 수립 시에도 이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정은 사회와 개인의 발전과 유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위로서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그 사회 속에 사는 개인들도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혼으로 인하여 이러한 가정의 기능이 파괴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혼에 대한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편견을 치료해 나가면서 다양한 가족과 개인들이 함께 조화와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풍이 떨어지네

진 명 희

무엇때문일까
온통 얼굴을 붉게 적시었다
흐르는 눈물만큼
자꾸만 쌓여 가는
바람의 세월
그 언저리에 나도
이만큼 얼굴을 붉히면서 살아왔구나
발끝에 떨어지는 단풍잎을 밟고는
서걱이는 소리를 모아
나도 한 잎 단풍이 된다

그리움이 발자국처럼
함께 내려앉는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가 어우러진다
우러러 바라보는 하늘 속에서
아픔이 쏟아져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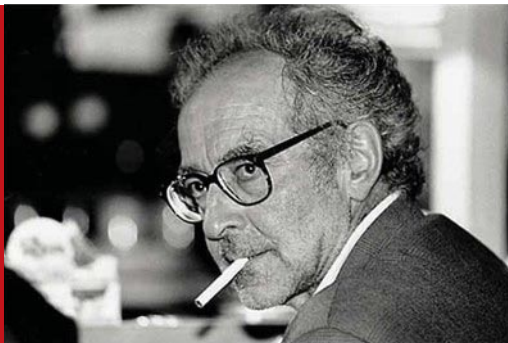
가을날
단풍잎이 내 몸으로 진다

_약력

- _ [조선문학] 신인상 수상으로 문단 데뷔
- _ 제5회 충남예술문화상 및 제11회 충남문학 작품상 수상
- _ 한국예총 예산 부지부장 및 한국문인협회 예산부지부장

사랑과 경멸

임원정규 (대전여민회)



'장 룩 고다르'

영화를 보기도 전에 감독의 이름만으로도 영화 보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버린다. 그는 영화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적을 통해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영화사를 바꾼 사람으로 이야기된다. 그래서인지 거장이라고 불리는 장 룩 고다르의 작품을 볼때면 강박적으로 영화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보았으며, 잘못 느끼고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한다. 영화가 누구에게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느껴지는 감정이다.

사랑과 경멸은 영화 제작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첫 장면이 거리에서 영화를 찍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배우를 다리위에서 카메라가 이동을 하며 촬영하고 있다. 나레이션으로 출연자, 감독, 스태프를 말하고, 앙드레 바쟁의 말을 인용한다.

“영화는 그것을 통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어야 한다. 이 영화는 그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다.”

카메라는 팬(pan) 하며 배우에게서 관객을 향해 이동하고, 줌인되면서 관객이 영화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카메라를 통해 본 창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두 남녀가 침대위에서 사랑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다. 화면색이 붉게 물들여져 있던 화면은 보통의 화면색으로 다시 푸른 화면으로 변화를 한다. 붉은 화면이 서로간의 애정으로 따뜻함이 느껴졌다면, 푸른 화면은 차가움으로 이후, 영화에서 진행될 상황을 미리 이야기해주는 듯하다.

남자 주인공은 극작가로써, 영화의 제작자와 만남을 가진다. 제작자의 등장은 주인공이 올려

다 봐야 하는 공간으로 설정이 되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고전 배우의 오버하는 연기처럼 우스꽝스럽다. 여기에서 제작자는 영어로, 주인공은 불어로 이야기하며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통역가가 존재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지만, 사람 사이의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것은 언어적 차이보다 더 심각하게 그 둘 사이의 괴리를 부각시켜 버린다.

제작자는 주인공에게 '섹스 그 이상의 무엇, 그 무엇'을 요구하고, 흥행이 될 만한 영화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제작자의 행동은 제작되고 있는 영화에서 별거벗은 여자를 보고 박수를 보내고, 수표책을 꺼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선정적이고 상업적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 모습은 영화를 상업적으로만 바라보는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비판으로 작용하고, 자본주의에서의 제작자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반대편에 서서 영화를 예술로 만들고 싶어하는 감독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을 프랑츠 랑 감독이 직접 연기하고 있다. 프랑츠 랑 감독은 독일 표현주의의 대가로 나치의 선전부장인 괴벨스로부터 나치 선전영화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고 헐리우드로 가서 필름 노와르의 선구자가 된 사람이다. 이러한 경력은 프랑츠 랑 감독이 영화내에서 직접 대사를 통해 말해지며, 그 당시의 영화가 나찌라는 권력에 의해 종속되었다면, 현재의 영화가 '자본'으로 대체되

었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준다. 그는 제작자의 요구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있으나 끝까지 영화를 찍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자 주인공은 제작자와 감독의 중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아파트를 새로 장만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며, 제작자의 요구로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 제작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부인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고, 경멸스러워 한다. 부인은 남자 주인공의 관찰자로서 관객도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임을 알기에 경멸과 동시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자아낸다. 그가 제작자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음악은 이러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영화 제작에 대해 부딪히는 모습들을 통해 자본주의내에서 영화가 예술로써 존재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을 잃지 않는 영화라고 느끼게 한다

보령 '로컬가이드'

글 : 성진모 (보령시 문화재해설사)

2002년 여성부의 전업주부재취업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로컬가이드' 교육을 받았으니 이제 만 3년이 넘어선다.

30명이 교육을 수료한 이후 온터 두레회 충남지부 회원으로써 지금은 5명이 지속적으로 모여서 온터 두레회 충남지부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체험학습 계획을 짜고 답사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다.

회장, 총무가 있다하나 궂은 일, 잔 일에 더 고생하는 게 사실이고, 기실 모임의 회원들 모두가 의사결정과정에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모아 배우고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에 그치지 않고 회원 모두가 배움의 열정으로 익혀 둔 지식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보조교사로, 독서논술교사로, 종이접기 및 한지공예지도사로, 영어강사로 각자의 전문직을 수행하면서도 2005년 시행된 매월 4째 주 체험학습의 날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연중 계획하여 거의 매월 1회 이상 가이드활동을 하고 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보령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국 어느 곳이라도 가장 알맞은 시기와 여건이 갖춰지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허언이 아닐 정도이다.

현장체험학습이 끝난 후 평가를 하고 다음 계획을 짜고 바빠 헤어지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참으로 소중한 뿌듯한 느낌을 뭐라 다 표현할까.

그러나 로컬가이드를 제대로 잘 하려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안내를 받는 대상들의 특성이나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이 아닌 '흥미유발'과 더 알고자하는 '동기부여',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기'를 위해 함께 떠난 학생, 학부모들에게 퀴즈도 내고 생활상식도 알려주면서 다니러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배우러 다닌다. 요즘은 아로마테라피를 배

워서 아로마를 응용한 향기요법, 비누 만들기도 함께 하고, 화장품도 직접 만들어 써 보고 있다. 다음번 체험학습 때 알려줄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뿌듯함을 가지고, 공부란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지난 8월부터는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충남서부평생학습원에서 보령도서관에 위임한 '외국인 며느리 한국 알기' 교육프로그램을 맡아서 20여명의 외국인 며느리들과 한글 수업도 하고 문화활동, 문화재 답사 등을 하고 있다.

우리들만의 힘으로 암중모색 하듯이 하나하나 준비해 온 자료를 서로 나누어 읽고 토론하고 이해해 온 시간을 무엇과 비교할까. 천천히, 느리지만 더디 가더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발자국씩 내 딛는 것이 더 알차고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임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회원들은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내고 이 회비로 자료도 만들고 현장답사도 간다. 그러나 회원모집이 충분히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대책이 부족하여 - 천상 회비를 넉넉히 받아야 하는데 남기는 '장사'를 하지 못하는 '순진함'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 떠나기 전 날까지 가슴 졸이기도 하고, 부족하면 모아둔 회비로 채워 넣기도 하기에 가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아이들을 선뜻 데려가지 못하는 마음이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러나 사실 십시일반 후원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으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한 부족함을 메울 수 있도록 부끄러우나 바라는 바는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차량 비용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게 현재의 가장 큰 소망이랄 수 있다.

회원들은 모임 운영에 있어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내린 의사결정이 얼마만큼 구속력을 가지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 때문에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모임을 자력으로 지속하기로 결정을 한 만큼 지속시키고자 노력하고 인간적 친화로 유지시키고 있으나 우리들이 내린 결정과 활동에 대해 누군가 검증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지역문화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나눌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극복해 나가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힘을 모아 모임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05년도



충남하계영어캠프 운영결과

충남도, 2005 하계영어캠프 운영결과 “만족”

- 참가 학생 및 학부모들이 매우 만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 나타나 -
- 지난 8.1 ~ 20일(3주간), 초등학교 60명을 대상, 24시간 영어 학습 -



충청남도는 올 여름 영어장애가 없는 미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어캠프”에서 참가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91.2%, 학부모 100%가 ‘만족’하다고 답변했다.

충남도가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올해 2번째로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합숙으로 공무원 교육원에서 초등학교 3~5학년 60

명의 학생들(유료 44, 무료 16)을 선발하여 영어로만 학습을 진행한 참여식 영어캠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설문조사를 영어캠프 참가자 전체 학생 60명과 학부모 60명 등 총12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결과로서, 먼저, 학생들의 설문에서 ▲원어민 교사의 언어 이해도를 묻는 조사에서 캠프시작 직후 37.9%만이 이해한다고 답변한 반면, 캠프 종료후 89.7%가 이해한다고 답변하여 교육 운영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캠프를 통한 영어사용에 자신감 및 관심도는 이번 캠프를 통하여 89.5%의 학생들



이 높아졌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가장 선호한 수업활동은 ▷클럽활동 53.4% ▷팀활동 25.9% ▷학급활동 10.4%, ▷영어 방송 10.3% 순으로 조사되어, 정적 학습보다는 동적 팀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영어캠프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만족한다 83.3% ▷대체로 만족한다 16.7% ▷보통이다 0%로 나타나, 응답자 100%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주의 캠프기간 적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적당하다 51.7% ▷대체로 적당하다 20% 등 71.7%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28.3%는 운영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희망했다.

또한 ▲참가학생의 경쟁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96.7%가 찬성하였으나 다만, 선발시험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지역별 인원안배가 52.6%로 나타나, 그동안 성적순으로 선발했던 방식을 일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해외 어학연수와 충남도 영어캠프를 비교하는 설문에서 85.7%가 충남캠프가 더 효과적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캠프기간 및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해외 어학연수를 대체하면서도 저렴한 연수비용과 신변안전 등에서 크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2006년 영어교육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도부터 달라진 여성관련 제도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명칭 및입소·이용 대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 성매매의 피해가 있거나 가출·유혹업소 출입 등 환경적으로 성매매의 우려가 있는 여성 • 자립자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성매매피해 상담소명칭변경 및 상담원 등 종사자 교육의 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복지상담소 - 지자체 : 여성복지상담원을 별정 8급 상당으로 배치 - 지자체외 : 여성부령에서 정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상담소 - 기신고 된 상담소 종사자는 '06.11.4까지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 - 상담원 등 종사자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양성교육을 먼저 이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상담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설 종사자 - 상담원3, 시설장1, 총무1, 취사부1, 세탁부1, 관리원1, 직업훈련교사 직종 당 1 • 여성복지상담소 - 상담원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설 종사자 - 상담원4~5, 시설장1, 총무1, 취사부1, 세탁부1, 관리원1, 직업훈련교사 직종 당 1. • 성매매피해상담소 - 상담원 5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치료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의료보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지원 - 시설입소·이용자에게 의료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항목(산부인과 피부과, 또는 치과 등)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5.성매매 피해자 법률구조비및 직업훈련비지원한 도액 하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구조비 - 350만원 • 직업훈련비 -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구조비 - 250만원 • 직업훈련비 - 35만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지원금 - 64만원 • 치료비 - 심리치료 : 100만원 - 한방치료 : 2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지원금 - 70만원 • 치료비 - 심리치료 : 80만원 - 한방치료 : 35만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법
7.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사무 지방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국고보조 등 국가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지원사무를 지자체에서 수행 - 운영비를 분권교부세로 지원 	여성발전 기본법
8.보육예산 지원체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비율 - 원장·영아반 : 90% - 유아반 : 45% • 보육지원대상 및 지원율 - 1층(최저생계비) 100% - 2층(최저생계비 120%) 60% - 3층(최저생계비 15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영아반 : 80% - 유아반 : 30% - 1층 100% - 2층 80% - 3층 60% - 4층(최저생계비 180%) 30% 	영유아 보육법
9.영·유아 보육료지원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0~4세아 저소득층 지원 - 대상 : 최저생계비 150%수준 - 지원단가 · 만0~1세아 : 257천원 · 만2세아 : 213천원 · 만3~4세아 : 131천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역별·시설별 차등 지원 - 도시지역 정부지원시설 : 9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0~4세아 저소득층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 상향조정 - 대상 : 최저생계비 180%수준 - 지원단가 상향조정 · 만0~1세아 : 299천원 · 만2세아 : 247천원 · 만3~4세아 : 153천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일원화 - 모든 보육시설 : 153천원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5.성매매 피해자 법률구조비및직업훈련비지원한도액 하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민간시설 : 110천원 - 농촌지역 모든시설 : 131천원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증 : 212천원 - 중증 : 257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장애인 : 299천원 	영유아보육법
10.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설치기준 •시설면적 : 3.63㎡/인 •보육실 : 1.98~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면적 : 4.29㎡/인 •보육실 : 2.64㎡ •위험시설 : 50m •정원 : 300인 이하 •보육실 1층 설치 원칙 •목욕실,화장실은 인접한 층 •놀이터 : 52인이하 •가정보육시설 : 단독,공동 주택설치 가능 	"
11.보육시설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진단 의무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종사자 <신 설> •보육시설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놀이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진단의무대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보육시설동거가족 •보육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운영사항 심의 •보육시설 명칭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으로 통일 	"
12.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
13.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시범운영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1,200개소(신청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5. 1월 ~ 12월 - 운영 : 민간위탁 	"



나의 **삶**의 지표 어머니

한 병 래 (홍성 주부모니터)

음력 12월 12일은 어머니의 기일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 가신지 벌써 40년이란 많은 세월이 흘렀건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주신 한없는 정과 교훈은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이맘 때 하얗게 눈이 쌓였던 추운 한 겨울이었습니다.

한창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당시 고등학생인 언니와 중학생이었던 나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만을 이 세상에 남기고 어머니께서는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께서는 저희 3자매의 손을 꼭 잡으시고 “아무리 너희가 여자이긴 하지만 커서 사회에 한 몫을 할 수 있게 공부도 꼭 해야 하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저희 3자매는 많은 실의를 안고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여 많은 슬픔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걱정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여 “잘 견뎌야 해,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셔” 다짐하곤 하였지요.

“굵다고 가꾸면 꽃 아닌 것이 없고 밋다고 버리면 풀 아닌 것이 없다.” “환경은 중립인데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굳은 신념을 지키면서 하루 하루를 지탱하면서 살아 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세상에 두고 떠나시며 하시던 말씀과 끝내 눈을 못 감으신 어머니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죠.

어머니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고 살아온 지금 저희는 어머니 앞에 힘껏 살았노라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 말씀을 잊지 않고 살면서 우리 세 자매는 이젠 사회에 한 몫을 하는 삶과 나 자신보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 '장미빛 인생'에 출연하여 방송국에서 어머니 생전에 좋아하시던 하이얀 국화꽃 다발을 어머니 무덤에 가져다 드렸을 때 지하에 계신 어머니께서 함박웃음을 웃으셨으리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고 그 아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교육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사셨죠.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한 지표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지금도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저희가족이 일요일마다 테마여행을 다니는데 같이 모시고 다니고 싶고, 맛있는 음식, 멋진 옷들도 사드리고 싶고, 어버이날에 어머니가슴에 꽃도 달아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께선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의 힘은 저희에게 영원히 살아 남아있을 거예요.



도, 제12회 도의새마을여인상 시상식 가져

- 6일, 공주 문예회관에서, 대상 김경자(서천군 마산면 부녀회장) 등 32명 시상 -



충청남도는 10월 6일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고애례 충남도새마을부녀회장, 한창숙 충남도새마을회장, 도, 시·군부녀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도의새마을여인상 시상식 및 행복한 가정 가꾸기 실천대회'를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 '난타' 축하 공연 ▲ 강학중 경희대 교수의 '행복한 가정 가꾸기'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어 시상식은 ▲ 대상 1명, 자조상 15명, 협동상 16명을 수여하고 ▲ 대상수상자인 김경자 서천군 마산면새마을부녀회장의 '사례발표' ▲ 도의새마을운동 참여와 행복한 가정 가꾸기에 헌신한다는 '결의문 낭독' ▲ 새마을노래 제창 순

으로 진행됐다.

한편, 대상 수상자 김경자(金慶子, 42세<사진>)씨는 15년 2개월간 서천군 마산면 새마을부녀회장을 맡아 오면서 ▲경노위안 잔치 200명 ▲무연분묘 별초 100기 ▲재활용품 수거 88톤 ▲불우이웃돕기 매년 5회이상 ▲자연정화활동 연 8회이상 등 밝은사회 가꾸기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고 있는 지역일꾼이다.

참고로, 도의새마을 여인상 시상제도는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가정 생활에 모범이 되는 부녀지도자를 발굴하여 1994년부터 시상해 온 제도이다.



충남도, 여성 통·리장 연찬회 가져

- 10월 18일 천안시청에서 여성통·리장 220명 대상으로 특강 등 교육 -



충청남도는 10월 18일 천안시청에서 도내 여성 통·리장 220명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교육은 국민의례, 유덕준 정부부지사 인사, 천안시장 환영사, 특강 2명, 레크레이션(몸풀기, 건전가요 등), 도정주요시책 설명, 사례발표 2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 지사는 유덕준 행정부지사가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지방행정의 풀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통·리장들이 각자 사명감과 주인 의식을 갖고 마을을 떠났던 주민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서 첫번째 강사로 나선 정순오 한남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의 역할과 리더십」이란 주제를 통하여 “진정한 여성의 역할은 남성이 발견하여 정의해 주어야 하고, 여성의 사회적 노출이 여성 지위척도의 전부가 아니며, 한국의 바람직한 여성관과 역할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가정내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며 후기산업사회에 여성인력이 보다 더 효과적인 사회생산력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 임길영 전북교육정보과학원장은 「행복을 내 품안에 심는 길」이란 주제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직업의식을 갖고 일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고, 행복의 열쇠는 작은 정을 담아 세심하게 보살피고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정 주요시책으로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상황과 사랑의 인술 사업, 영·유아보육정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을 설명회를 가졌다.

이어서 여성으로서 통·리장 활동을 해오면서 보람·어려웠던 일 등에 대한 사례발표에서 김경자 천안시 쌍용3동 통장은 “주민은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행정과 주민사이의 소통을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희 부여군 옥산면 대덕1리 이장은

“여자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6년전 부여군내에서 최초의 여성 이장으로 선정되어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함으로써 마을에서 인정을 받는 이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제51회 백제문화제 화려하게 펼쳐져

- 10월 7일부터 4일간, 공주시 일원에서 찬란한 백제문화 전성기 재현 -



제51회 백제문화제가 백제의 고도 공주 공산성 및 금강둔치공원 일원에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백제의 불, 금강의 빛’ 라는 주제 아래, 금강교의 야간조명과 레이저 빔을 이용, 금강에 비친 환상적인 불과 빛으로 행사장 주변을 밝히며 화려하게 펼쳐졌다.

▲첫째날 7일은 ‘문주왕 천도의 날’이란 타이틀을 정하고 ▷백제혼불 채화 및 봉송, 백제사대왕 추모제, 백제혼불 점화식이 연문광장 등에서 열렸고 ▷연문광장에서 금강철교를 건너 둔치공원까지 백제역사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오후 8시부터는 행사장 주무대인 금강둔치공원 특설무대에서 백제왕(문주왕) 천도연회가 궁중무용인 화관무, 놀이패 풍장, 불꽃놀이, 레이저쇼, 해외예술단 공연 등의 축하행사와 함께 성대하게 펼쳐졌다.

▲둘째날 8일은 ‘동성왕 승전의 날’로 정하고 ▷금강둔치공원에서 동성왕 승전행렬 및 연회, 축하행사(불꽃놀이 등), 유학자 무용단 공연, 유등제 ▷공산성에서는 충남국악관현악단 공연, 청소년 페스티벌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셋째날 9일은 ‘부령왕 중흥의 날’로 정하고

▷금강둔치공원에서 무령왕 중흥 행렬 및 연회, 충남풍물경연 대회, ▷공산성에서는 전국시조경창대회, 중국연변예술단 공연 등이 마련되었다

▲마지막날 10일은 '화합의 날'로 정하고 ▷백제혼불 진혼식, 웅진성수문명 철병식, 시민화합 한마당이 펼쳐졌다.

그밖에 계속된 행사로는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백제유적신포지음, 백제유물특별전 ▷문예회관에서 한일미술교류전 ▷ 공산성에서는 백제장터 운영, 성안마을에서는 백제문화 체험행사,

웅진성수문명 교대식 등이 열렸다.

올해 백제문화제의 특징은 그동안 의식행사로 치루어졌던 별도의 개막식 행사가 없고 시민모두가 다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탈바꿈하였으며, 특히 낮 위주의 행사에서 밤 행사로, 학생중심 행사에서 시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행사로, 장소가 제한된 운동장 중심에서 열린 공간인 금강 중심으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면서 지역행사에서 국제규모의 행사로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주목을 끌고 있다.

제13회 충청남도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열려

- 26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도내 여성자원봉사자 등 750여명 참여 화합 다져 -
- 사랑의 한줌 쌀 모으기, 지역주민과 함께 한 화합의 場 등 운영 -

충청남도는 10월 26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박동운 충남도의회위원장, 김낙성 국회의원, 김광만·성기문·이제남 충남도의회의원, 한창숙 충남새마을회장, 민종기 당진군수, 도내 여성자원봉사자 등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3회 충청남도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지역에서 보이지 않게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온 도내 여성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명

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沈 지사는 대회사를 통하여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인 간디의 어록을 인용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며 참다운 봉사의 가치에 대하여 역설하고, 지금이야말로 국민 스스로의 삶에 대한 만족을 증대시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2부와 부대행사로 진행됐는데 ▲제1부는 의식행사로 ▷금산군 김명자(56세)외 18명의 여성자원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사랑의 쌀(4가마) 전달식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2005년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윤혜란씨의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세상”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제2부에서는 민족음악 중흥과 한국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충남 국악단과 건강한 문화 창달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랑의 문화 봉사단'을 초청, 대회 참여자들과 당진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부대행사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이·미용,

수지침, 미술치료 등『자원봉사활동 시연회』를 열어 당진 지역주민들과 참가자들의 현장체험 경험을 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사진전시회를 열어 여성폭력예방 및 방지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홍보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들마다 한 줍씩 가져온 쌀을 모으는 “사랑의 한 줍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모은 쌀 4가마를 당진군 소재 저소득 재가결식 노인 무료식당 3개소에 전달하는 파스한 이웃사랑 실천운동도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흐뭇한 표정을 엿볼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됐다.

충청남도는 매월 여성자원봉사자 중 가장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김옥자(55세, 금산군 여성자원활동센터<사진>)씨를 『9월의 여성자원봉사 왕』으로 선정했다.

김씨는 평소에 뜻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바쁜 가정생활을 쪼개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감동받아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11년을 넘게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는 숨은 자원봉사자다.

김씨는 지난 한 달간 ▲매주 수·목요일에 무료경로식당에서 음식조리 및 배식활동 ▲매주

목요일에는 어려운 가정 방문 밑반찬지원 ▲금산인삼축제장 급수봉사, 주변청소, 안내 등 총 18회에 걸쳐 177시간 동안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김씨는 수상소감으로 “여성자원봉사왕으로 선발되어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 쑥스럽다”며 “앞으로 저와 인연을 맺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한분 한분에게 나이가 들어 몸이 지칠 때까지 행복을 전해 주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 '건강한 가정' 지킴이

- 예산가정상담소 개소 -

▲ 예산가정상담소가 지난 3월 29일 개소되어 가정폭력 등 상담을 통해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나섰다.



예산가정상담소는 지난 3월 29일 예산읍 예산리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박종순 예산군수, 이희운 군의회 의장, 한달우 경찰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삶과 가정을 나누기 위한 상담소 개소식을 가졌다. 앞으로 상담소는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개인과 부부, 가정에 도움을 주

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예산가정상담소는 6명의 대학 교수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상담활동, 가정폭력 상담, 성폭력 상담, 개인·자녀·부모의 가족상담을 주로 하게 되며 각급 학교 성교육, 부모자녀 역할 대화법, 인터넷 과다 사용 예방, 집단 상담프로그램, 미술치료 등의 교육활동도 병행한다. 최현숙 가정상담소장은 "우리 군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상담소를 개소하게 됐다"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진군, 여성의 전당 조성 추진

- 가정복지관내 증축 20억 확보 -

당진군이 시 승격을 대비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의 전당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 당진읍 행정리 가정복지회관 내에 증축과 수선하는 방식으로 여성 전용의 공원 조성으로 분수대, 체육시설, 조경 시설물, 조경수 식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설계비, 건물 증축·수선비, 공원 조성비 등 20여억원의 사업비 확보에 나섰다.

부여군, 불우이웃 돕는 '사랑의 미용사'

-부여 미용사회 노인병원 등서 봉사활동-



▲ 대한미용사회 충남지회 부여군지부 회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찾아 미용 봉사를 펼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이웃을 위해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한미용사회 충남지회 부여군지부 회원 30여명.

이들은 3개조로 나뉘 정신병원, 장애인봉사, 노인병원 등을 찾아가 거동불편 환자 및 장애인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까지 일일이 찾아가 침상에서 머리를 손질해 주는 등 환자 가족들도 꺼리는 일을 척척 해

주고 있다. 또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집을 찾아가 머리 손질은 물론 집안 청소와 정리 등을 손수 찾아서 하고 있으며, 밑반찬 등을 장만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송민자 지부장은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을 위해 정성과 사랑을 다해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여 노인전문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머리손질이 큰 고민인데 봉사원들이 1개월에 한 번씩 찾아와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위생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줘 너무 고맙다"고 밝혔다.

공주시, 고향사랑 NET 1사1촌 자매결연

공주시가 인터넷 속에 고향마을을 구현하여 출향인 등 도시민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고향사랑 NET'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 1사1촌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오영희 공주시장과 임의순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장, '고향사랑 NET' 운영마을 대표와



공주시청 11개 실·과장, 11개 읍면의 단위농협 조합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9일 오전 11시 공주시 의당면 의당농협 예식장에서 거행됐다.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와 11개 읍면 단위농협이 주관한 이 행사는 공주시청 공보전 산실 등 11개 실·과장과 우성면 봉현리 등 11개 마을대표가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조인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영희 공주시장은 축사

를 통해 “대단히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과 지역 농업발전의 전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고향사랑 NET 1사1촌 자매결연을 계기로 고향마을의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농산물 직거래 기능 제공으로 보다 나은 농촌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가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지난 해 29개 마을에 1대씩의 PC 보급과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올해는 12월까지 58개 마을에 PC와 홈페이지를 갖추어 줄 예정이다.

아산시, 도고면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가져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훈훈한 사랑의 온기 전달 -

도고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협의회장:김진섭, 부녀회장:황덕순)는 지난 11월 25일(금)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쌀쌀한 날씨에도 김장담그기 행사에 나선 지도자들은 김장 200여포기를 담가 도고면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30명에게 김장 10kg씩을 전달했다. 올해 유난히 배추값등의 상승으로 김장비용이 높아져 부담을 느끼는 어려운 이웃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보여주었다.

한편 도고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그동안 자연보호운동, 꽃길 가꾸기, 노인효도잔치 등 봉사활

동을 활발히 펼친 봉사단체로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다.

[도고면사무소 540-2610]

서산시, 365일 불우이웃과 온정 나눈 백의천사들



▲ 11월 15일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으로 새 보금자리를 얻게된 김정자(70.사진좌측 두 번째) 할머니가 보건소 방문 진료팀 간호원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다.

지 부여돼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15일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16.5㎡(5평) 남짓한 조립식 건물을 선물로 받은 김정자(70.지곡면 환성2리) 할머니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6개월 전 월세로 살던 집이 팔리면서 거처를 잃어버린 김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접한 방문 진료팀이 도움을 요청하자 관내 봉사단체인 충서라이온스클럽(회장 김기영)이 250여 만원을 들여 아담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는 “주위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건물을 짓는데 땅을 선뜻 내어준 이웃에게 뭐라 고마운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 진료팀원들은 진료활동 외에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와 이들 노인세대를 연결해

365일 불우이웃과 온정을 나뉘은 서산시보건소 방문보건 진료팀원들은 요즘 눈코 뜰새 없는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의 건강도 돌봐야하고 치매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진료팀으로부터 간호를 받아온 670여명의 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음달 15일까지 가정방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방문의 경우 진료팀에게는 기본적인 건강체크 외에 노인들이 안고 있는 겨우살이 걱정까지 해결해야 하는 특명까지

주는 역할까지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최근까지 보건진료팀원들은 노인 670여명을 1만2400여 차례나 방문해 건강측정 및 검사는 물론 의료 기자재 지원, 휠체어와 목발 대여, 인공관절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이들 노인들의 이.미용 관리를 위해 30개 미용단체의 봉사활동을 이끌어내고 결식 노인들에게 도시락이 배달되도록 사회 봉사단체를 주선해 왔다.

또한 시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위해 안경 맞춰주기 행사는 유도하는 한편 보일러 수리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노인세대가 겪는 생활 불편을 해결해 왔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혹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딱한 사정에 놓인 노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마음이 늘 무겁지만 봉사단체 또는 후원단체에게 안타까운 사연을 알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때가 가장 보람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공보담당(Tel 660-2221)

논산시, 사랑담은 김장담그기 행사 개최



논산시는 관내 독거노인세대 및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11월17일 논산시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 하였다

이번 행사 주관은 새마을운동논산지회(회장 서길석)로 박평옥시부녀회장 및 각 읍면동 새마을 남·여 지도자 22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 8,000포기를 담가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등 450가구에 일제히 전달했다.

천안시, 여성회관 수강생 따뜻한 온정 전해

- 알뜰바자회 수익금 8백60만원 어려운 이웃에 사랑담아 전달 -

천안시여성회관(관장 김희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 들이 사랑의 알뜰바자회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수강생자치회 「조진숙」회장을 비롯한 수강생 대표 10여명은 지난 11월 22일 수강생들이 정성껏 수집한 재활용품 및 의류를 비롯하여 직접 만든 요리와 떡, 도자기 김, 미역 등을 판매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먼저 수강생 자녀중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수강생으로 스티브 중후군이란 희귀, 난치병으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방문 성금을 전달하고 회복을 빌었다.

또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은 어려운 이웃 26가정에도 후원금과 음료수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 따뜻한 위로와 함께 온정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여성회관을 통해 새로운 배움과 생활에 활력을 갖게 되었는데 주변의 이웃을 살펴보는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뜻 깊은 하루였다고 입을 모았다.

예산군, 고향사랑 NET 구축마을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농협충남지역본부와 지자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향사랑 넷(NET) 구축마을 사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고향소식, 지역특산물소개, 문화재 소개로 농촌마을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식이 있었다.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의 주관으로 지난 10월

27일 세심천호텔에서 삼교읍 하포리등 38개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예산군청 자치행정과등 38개 실과, 사업소 읍.면장 등이 참석하여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이번에 결연식을 가진 1사1촌의 주요 사업내용은 기업, 기관, 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농촌지원과 농촌 환경보호 활동,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농촌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 농촌관광 및 팜스테이 등 결연기업 단체 임직원 여가활동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충남도, 『10월의 여성자원봉사왕』 김혜숙씨 선정

- 경로식당 음식조리, 노인보호센터 건강마사지·풍물지도 등 31회 182시간 봉사 -

“지금은 제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보다 사회복지가 많이 좋아졌기는 하지만, 점점 변화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가족사랑의 해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는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공주시 여성자원봉사센터 김혜숙(63세)여사를 “10월의 여성자원봉사왕”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金 여사는 지난 추석에 100명이 넘는 치매 어르신들이 계시는 국립병원에 목욕봉사를 가서 느낀 것은, “명절이라고 부모님을 찾아 오는 자식은 불과 3~4명 뿐이었다”며,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베풀 받을 만큼의 사랑밖에 안되었나라고 세태를 꼬집으며, 이런 외로운 분들을 위한 봉사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말했다.

金 여사는 지난 한 달간 ▲무료경로식당에서 음식조리 및 배식활동 ▲노인전문병원, 국립공주병원에서 목욕봉사 및 이·미용 ▲할머니방, 노인보호센터에서 건강마사지 및 풍물지도 ▲백제문화제, 아줌마축제 등 급수봉사 총 31회에 걸쳐 182시간 동안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 다음은 10월의 자원봉사왕으로 선정되신 공주시자원봉사센터 김혜숙님의 활동소감입니다.

- 편집자 주 -

1 소감 및 소개



좀 더 추워지기 전에 어르신들이 드실 밑반찬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성자원봉사왕에 선정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64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지금도 건강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의 사랑과 열렬한 지지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자원봉사자들만의 전용사무실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집에 있는 방 한 칸을 비워 자원봉사자들이 쉴 수 있고, 회의도 하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주던 남편은 나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시 큰 짐들이 있을 때는 남편이 차량으로 운반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 집안일도 소홀히 못하겠더라고요. 요즘같이 김장철로 바쁜 날엔 아침

일찍부터 밖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부지런해야 집안일을 마무리 하고 맘 편히 밖에 나올 수 있습니다.

결혼한 딸과 미혼인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이들 역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니 제가 즐겁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자원봉사왕이라는 상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나뉘가질 뭉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원봉사 활동의 계기

처음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결혼 후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했던 불효가 가슴에 한으로 남아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자원봉사활동이 벌써 20년이 되어버렸네요.

처음에는 주로 해 온 자원봉사활동은 지역행사시 급수봉사와 무의탁노인 시설 치매노인에게 목욕, 청소, 빨래 등의 노력봉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해보고 싶고, 또 취미생활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3년 전에 여성자원봉사자전문교육(건강 마사지)를 이수하여 지금은 한 달에 한번 시설을 찾아가 노인들의 건강마사지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좋아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전쯤에 풍물도 배워 경로당이나 지역에서 행사만 있으면 풍물 공연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노력봉사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능이 있으면 더욱 좋을 듯 싶어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교육에 참여했던 것이 자원봉사활동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 전에는 풍선아트 자원봉사자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연습해서 시설 어르신들 생일잔치 때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쁜 모양의 풍선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자원봉사활동

매달 면단위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배,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자식들을 객지로 떠나보내고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것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더 심한 경우는 부모가 힘없고 거동이 불편한 것

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방치해두고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인정 하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얼굴은 쓸쓸함으로 가득하고 몸은 힘없이 축 처진 어깨를 보고 있다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자원봉사자는 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안타까운 동정의 눈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한번은 홀로 사시는 할머니댁 이었는데,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이불이 다 헤져 뒹고 주무시기엔 더러워 보여서 이불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불을 찾으시더군요. “할머니 너무 더러워서 우리가 버렸어요, 깨끗하고 뽕뽕이한 이불로 다시 해 드릴게요.”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할머니께서는 불호령을 치시더군요.

당장 찾아오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너무 더러워서 더 이상은 뒹고 주무실 수 없다.”고 설득해 보았지만 고집을 꺾을순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경솔한 생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분께서는 몇 년을 뒹고 주무셨는지 아님 몇 십 년을 뒹고 주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동고동락 했을 이불이었으니, 이불 하나에도 얼마나 정을 두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사소한 것 일 수도 있겠지만 매일 홀로 주무실 때, 그 허름한 이불에 몸을 기대어 잠을 청하셨을 터인데 갑작스레 새 것으로 교체하면 낯설어 잠이나 주무실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더군요.

이불을 버린 곳으로 달려가 이불을 다시 찾고 깨끗이 빨아서 빨랫줄에 널고 나니 그제야 할머니는 안심이 되었나 봅니다. 언제 자원봉사자들에게 화를 내었냐는 듯이 환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괜한 짓을 해서 할머니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만 같아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 보람을 느꼈을 때

“할머니 오늘도 자원봉사활동 하러 가요?”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나가기 위해 외출준비를 하고 있으면 네 살짜리 손자가 늘 나에게 묻는 말입니다.

외출하고 밖에 들어와도 손자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잘 다녀오셨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할머니 오늘도 자원봉사활동 하고 오셨어요?” 라는 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귀여운 손자가 나를 향해 건네는 말에 피로가 싹 풀립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손자를 가끔씩 데리고 다녔더니 아마도 자원봉사활동이란 의미는 모

르겠지만 손자도 나중에 커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받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안일로 바쁘거나 몸이 아파 자원봉사활동을 쉬는 날이면, 무엇 때문에 오지 않았는지?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서운함 반 걱정 반으로 나의 근황을 물어 본다고 그러더군요. 내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자원봉사활동을 그만 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뿌듯함과 또, 타인은 나로 인해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 자원봉사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지금은 제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보다 사회복지가 많이 좋아졌기는 하지만 점점 변화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가족사랑의 해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추석에는 백명이 넘는 치매 어르신들께서 계시는 국립병원에 찾아가 어르신들 목욕을 시켜 드렸습니다.

추석이라고 부모님을 모시러 오는 자식들은 불과 3~4명 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더 많다는 소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버림받을 만큼의 사랑밖에 안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부모를 버린 자식들이 또 다른 자식들을 키우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해보니 눈물이 납니다.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이 보고 싶어서 우시는 노인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나 역시도 적지 않은 나이 이고 손자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을 볼 때면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넘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부족한 것은 아니 한만 못 할 테니까요.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고 싶고, 또 작은 미소에서도 진심으로 사랑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다면 건강한 두 다리가 있는 한 행복을 전해 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제16회 충남여성포럼 토론회 가져

- 10월 6일 천안대학교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토의 -



충남여성포럼(선임대표 김경숙)이 지난 10월 6일 천안대학교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제16회 충남여성포럼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약화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정문제를 지원하여 건강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고 건전한 가정문화 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모선희 공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정책의 흐름과 발전방향, 강기철 천안대학교 교수는 “충남 천안 건강가정 지원센터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서 김연화 서울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은 “도시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및 현황”, 송다영 호서대학교 교수는 “충남지역 가족 문제의 현황과 방향”, 최영선 충남여성포럼 사회복지보육분과장은 “충남 건강가정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각각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경숙 충남여성포럼 선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가정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책임이므로 가족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가족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덕준 충남행정부지사는 “가정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개인의 행복 뿐만 아니라 밝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며 “행복한 가정과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Q&A

함께하는 이야기는 취업이나 노동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 편집자주 -

Q. 저는 서비스제공업체에서(신용평가기관) 올해 3월21부터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오늘 오후에 부당해고?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만두는 시기는 제가 구직활동을 해서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다니던지, 제가 결정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나와라.. 이런 건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그만둘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업무상 이라던가,, 아님 대인관계 부분에 있어서 실수없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마는.. 이번에 접수하는 동생이 출산땀에 퇴사하고 다른 사람이 접수업무를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회사생활하면서 제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었지만, 그만 나오라고 할 정도로 특별히 못한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첩에 채용할때 광고는 계약직에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면접시에는 아르바이트고 4대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 4대보험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내부규정이 우선입니까? 아님 노동법이 우선입니까? 회사는 어떤 입장인지요? 우선은 그것이 궁금하고요. 회사의 부당해고?권고사직? 의 결정을 받아들이기엔 힘들어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있는 법적 방법이라도 있을지요. 물론 한 개인과 거대한 회사와의 관계라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지도 모르나. 해결방안을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고요. 그게 안된다면 실업급여라도 꼭 타고 싶어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디잖아요. 도와주세요~

A. 1. 고용보험은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하여 4대보험이 적용안된다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귀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인 3월21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자격취득해야 하며,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임금지급이나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등을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출처 : 노무법인필

1999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여성문제의 추이연구	7~12	정 책 개 발 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흐름과 지자체 정책과제에 비추어 본 충남여성정책	7~12		
충남여성의 의식실태 조사	7~12		
'99 충남여성통계	7~12		

■ 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주관부서
21세기 여성정책의 비전	'99. 9. 8	도청 대강당	300명	여 성 교 육 부
건강이 여성개발의 토대	'99. 9.2~11.9	시·군순회	2,000명	

2000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여성의 자원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1~12	정 책 개 발 부	
충남공직자 모성보호 휴가의 현실화 방안 연구	1~12		
충남여성농민 고용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연구	2~12		
충남지역 농촌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3~12		
충남여성 취업 길라잡이	9~11		핸드북
여성을 위한 직업모음	9~11		핸드북
충남지역 여대생 취업 길라잡이	9~11		핸드북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4. 27	본원 대강당	50	정 책 개 발 부	
충남지역 여대생 취업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5. 12	청양대 대강당	250		
농촌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워크샵	6. 23	본원 대강당	44		
개원1주년 기념 「지방자치시대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	7. 14	본원 대강당	50		세미나
충남 농촌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샵	9. 22	본원 대강당	36		
충남여성의 지방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샵	10. 26	본원 대강당	20		

■ 교육사업

과 정 명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여성담당 공직자 과정	4. 11	본원 대강당	31	여성 교육 부	
보건담당 공직자 과정	5. 17	본원 대강당	28		
여성상담원 교육과정	5. 26	본원 대강당	37		
道 공무원교육원 강의	6. 1~6. 13	공무원교육원	600		총4회
여성단체지도자 과정	6.16, 6.21, 6.29	본원 대강당	135		총3회
사회교육강사 과정	7. 28	본원 대강당	44		
여성체육인 과정	8. 22~8. 24	천안상록유스호스텔	75		
여성정보화 과정	9. 25~9. 29	연기군청 정보화교육장	20		
대전시 공무원교육원 강의	9. 25~9. 29	대전시공무원교육원	120		총3회
여성단체실무자 과정	10.13, 10.19	본원 대강당	87		총2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과정	10. 17~11. 24	논산, 공주, 홍성, 부여, 연기군	122		총5회
부모교육 강사과정 강의	10. 19~10. 20	예산군 가야관광호텔	250		
부부농업인 교육과정	12. 18~12. 19	농협공주교육원	24		
중국교포와 결혼가정 문화강좌	12. 19~12. 20	부여청소년수련원	33		

2001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사업의 유기적 연계방안 연구	1~10	정 책 개 발 부	
여고생 직업의식 강화교육프로그램의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	5~12		
충남여성 IT 전문인력 개발 방안	5~12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5~12		
충남 여성단체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1~12		
충남 여성자원활동 수요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1~12		
충남 여성선도보호시설 개선방안 연구	1~12		
충남 보건소의 여성보건사업 현황과 과제	7~12		
여성노인인력의 복지자원화 방안 연구	1~10		
2001년 충남여성통계	7~12		
충남 여성의 정치의식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1~12	여 성 교 육 부	
충남지역 여성신지식농업인 발굴사례 연구	1~12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연구	1~12		
농촌지역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7~12		

* 개원이후 사업실적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 고
충청남도 성교육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샵	3. 9	본원 대강당	70	정책개발부	
농촌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샵	3. 29	본원 세미나실	67	"	
충남여성 의정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샵	4. 17	본원 대강당	70	"	
성폭력 관련 담당자 워크샵	5. 10	본원 대강당	98	여성교육부	
개별화 교육 워크샵	6. 4	본원 대강당	200	"	
개원2주년 기념 세미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사회참여」	7. 6	본원 대강당	80	정책·교육부	공동수행
여학생·학부모 진로/직업의식 강화를 위한 camp	8. 6~ 8. 11	본원 대강당 및 숙박시설	90 (45명 2회)	정책개발부	교육인적자원부 용역사업
전국 여성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10. 22	본원 대강당	80	"	여성부 후원
여성건강증진사업 발전방향모색 워크샵	10. 26	세미나실	40	"	

■ 교육사업

과 정 명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과정	2. 1~2. 21	천안YMCA강당	20	여 성 교 육 부	
여성경찰리더십 향상 과정	2. 9	본원 대강당	55		
여성공직자 과정	3. 22, 3. 30	본원 대강당	75		총2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 교육	4. 10~11. 30	공주 아산 당진 예산 태안 연기보령	202		총7회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	4. 18~5. 10	본원 대강당	42		
충남공무원교육원 교육	4. 23~5. 17	충남공무원교육원	210		총7회
여성자치대학	4. 25~10. 31	서산, 금산, 당진, 공주	259		총4회
여성·아동복지상담원 교육	6. 20	본원대강당	176		
여성창업 과정	7. 9~7. 13	본원대강당	50		
한부모가정 상담자원활동자 교육	7. 19~7. 20	본원대강당 및 숙박시설	40		
개별화교육 교원 연수	7. 23~8. 3	대전 서원초등학교	65		총2회
여성단체활동가 과정1기	8. 31	칠갑산자연휴양림	50		
여성단체활동가 과정2기	9. 7	보령정심원	150		
부모교육강사 양성 과정1기	9. 13~9. 15	본원대강당 및 숙박시설	45		
문화유적지 안내도우미 과정	11. 5	본원세미나실	21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11. 8	공주대 시청각실	70		
선거자원활동자 과정	11. 16	본원대강당	100		
여성정치외식 향상을 위한 워크샵	11. 16	본원대강당	100		
부모교육강사 양성 과정2기	11. 29~12. 1	본원 세미나실	20		
한부모가정 「청소년 지원과정」	12. 27~12. 28	본원 대강당 및 숙박시설	71		

2002년도 사업실적

■ 워크샵&세미나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역사속의 양성평등 제도 사례 연구	2~6	정책개발부	
충남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1		
충남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2~11		
충남 노인간병서비스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2~11		
충남여성 1366 네트워크 형성방안 연구	2~11		
충남 여성공무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연구	2~11		
충남여성 정보화 실태와 정보화 능력 향상방안 연구	2~12		
충남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와 과제	2~12		
충남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구	2~12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여성농업인 정책비교 연구	2~12		
충남 행정의 성주류화 실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2~12		
충남 여성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12		
여성을 위한 가족생활관련 법률안내	2~10	여성교육부	
충남지역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조사연구	2~10		
충남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실태와 대처방안	2~12		
충남지역 친환경농가의 여성농업인 지원방안 연구	2~12		
농촌지역 여성 평생학습 지원방안 모색	2~12		

■ 워크샵&세미나

주제	일자	장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노인간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샵	5. 22	세미나실	40	정책개발부	
충남여성1366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워크샵	5. 24	세미나실	40	"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대처방안 모색 세미나	5. 31	대강당	57	여성교육부	
개원 3주년 기념 「충남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7. 23	대강당	80	정책개발부	
충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방안 모색 워크샵	9. 25	세미나실	31	"	
충남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고충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10. 31	홍성 홍동면사무소	42	여성교육부	

■ 교육사업

연구과제명	일자	장소	비고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1차교육	2. 22	꽃박조직위	180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2차교육	3. 20	꽃박조직위	190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3차교육	4. 10	꽃박조직위	201
성교육 자원활동자 과정	5. 27-5. 31	대강당	42
한부모가정 소모임 운영을 위한 여성문화활동가 과정	6. 24-6. 28	세미나실	26
차세대여성지도자육성 여대생 캠프	7. 12-7. 13	대강당	62
공주시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를 위한 한마음 여름캠프	8. 1-2(1박2일)	대강당	40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	8. 28-8. 30	세미나실	31
여성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과정	8. 29	공주농업기술센터	200
서산시 여성자원봉사학교	9. 2-9. 16	서산시청	112
여성공직자 과정 1,2,3차 교육	9. 30/10. 2/10. 4	대강당	18/27/27
2002실버인터넷 경진대회	예선 10. 7-11 본선 10. 18	사이버예선 청양대(본선)	646

2003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지역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 실태와 의식향상 방안 연구	03. 1~8	정책개발부	
충남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증진 방안 연구	03. 1~11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지원 방안 연구	03. 1~12		
충남 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소득증대 지원방안 연구	03. 1~12		
충남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03. 1~12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03. 1~11		
농가도우미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03. 1~12		
충남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03. 1~12		
2003년 충남여성통계	03. 1~12		
충남지역 여성소모임 활동사례 연구	03. 1~12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의 전문성 향상방안 연구	03. 1~12	여성교육부	
초등학교 성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03. 1~12		
충남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03. 1~12		

■ 용역사업

용역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어린이 인성교육원 자문용역 - 미래인재양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 -	02.10~03.4	정책개발부	충청남도
아시아의 농촌과 여성의 지위 - 충남도 여성농업인의 세력화 방안 -	03.2~04.3		日구마모토현
2003 여성신직업페스티벌 연구 용역	03.6~03.8		여성부
어린이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 충남을 빛낸 사람들 외 5개 주제 -	03.7~03.12		충청남도

■ 교육사업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조직 활동가 교육	2.10-14	세미나실	27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3.25/26/27	대강당	74	
여성소자본 창업과정	4.28~5.2	세미나실	27	
2003주부인터넷 경진대회	예선 4.7~11 본선 4.25	청양대학	1,238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과정	6.9~7.1	세미나실	33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 여대생 캠프	6.27~28	대강당	51	
당진군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9.16(1차), 9.23(2차)	당진군 가정 복지회관	118	
2003 실버인터넷 경진대회	9.22~9.26, 10.15	청양대학	446	
여성참여마을 만들기	9. 30	천안대	207	
아산시 여성단체활동가 교육	11. 3~4(1차) 11. 5~6(2차)	세미나실	81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11. 11~12	세미나실	30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12. 3	대강당	62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3. 12	천안시민회관 소강당	160	정책개발부	
충남여성농업인의 세력화 방안 모색 워크샵	6. 5	세미나실	35		
개원 4주년 기념 세미나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삶과 노인부양 문제	7. 7	대강당	200	여성교육부	
충남 재가 여성장애인 정책방향 모색 워크샵	7. 15	세미나실	26	정책개발부	
고령화 사회 여성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방안모색 워크샵	9. 25	세미나실	30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샵	10. 9	세미나실	10		
농가도우미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샵	12. 9	세미나실	10		

2004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농업정책 성주류화를 위한 충남여성농업인 생활양식 연구	'04. 1~10	정책연구실	
농촌관광미를 여성참여 현황과 정책과제	'04. 1~11		
이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04. 1~12		
충남 특수보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04. 1~12		
충남지역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사업 방안 연구	'04. 1~12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노인 복지정책 비교연구	'04. 1~12		
충남 여성공무원 리더쉽 향상 방안 연구	'04. 1~12		
충남 여성 통리장의 역할 제고방안 연구	'04. 1~12		
충남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04. 1~12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고취교육 방안 연구	'04. 1~12		

■ 교육 사업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고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3. 10~12	본원 세미나실	26	
공무원 양성평등과정	4. 19~23(A조) 4. 26~30(B조)	본원 세미나실	81 (39명, 42명)	
2004주부인터넷경진대회	4. 19~4. 23(예선) 5. 7(본선)	사이버예선 청양대학(본선)	3,099	
성폭력전문상담원과정	5. 24~6. 4	본원 세미나실	42	
혼인귀화여성농업인 상담원 양성교육	5. 27~28	대강당 / 세미나실	43	
여성소자본 창업과정 교육	7. 12~27	대강당	59	
혼인귀화여성농업인 부부교육	8. 16~17	대강당	82	
서산시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9. 2~3	세미나실	27	
여성부 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 교육 (결혼초기)	9. 9~10	세미나실	20	
2030우먼리더십 캠프	9. 21~22	대강당	43	
2004실버인터넷경진대회	10. 4~13(예선) 10. 22(본선)	사이버예선 청양대학교	496	
여성부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교육 (예비부부)	11. 1~2	세미나실	24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11. 11	세미나실	30	
충남 혼인귀화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11. 18	예산 농촌진흥원	300	

■ 워크샵 & 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충남여성 통·리장 역할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2. 17	천안 쌍용 3동 사무소	7	정 책 연 구 실	
개원5주년 기념 한·일 여성노인정책 포럼	7. 07	선문대학교	120		
농촌관광마을 여성참여현황과 정책과제 모색 세미나	7. 09		25		
충남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사업방향 모색 워크샵	12. 20	세미나실	20		
성별영향분석평가 워크샵 개최	12. 23		20		

■ 용역사업

용역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04. 08~04. 12	정책연구실	여성부
아동기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04. 11~05. 05	정책연구실	여성부

2005년도 사업실적

■ 교육사업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고
공무원 양성평등교육	3.14~3.18 4.11~4.15	세심당 세미나실	58명 (23,35)	
관악구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4. 18 ~ 19	세미나실	42명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과정	5. 9 ~ 5. 31	세미나실	37명	
2005주부실버정보화 경진대회	5. 9 ~ 13(예선) 6. 3(본선)	사이버경연 청양대학	1,268명	
농촌지역 방과후 교실 보조교사 교육	5.13~7. 8 (주1회 60시간)	세미나실	34명	
관광마인드 서비스 향상 교육	6. 1 ~ 6. 2	대강당	49명	
혼인귀화 여성농업인 문화체험 교육	6. 29 ~ 7. 20	세미나실	36명(19,17) 참야10,16=26 총62명(29,33)	
혼인귀화 여성농업인부부 자녀캠프	7. 25 ~ 7. 27	세미나실	38명	
2005년도 여성정치대학	9. 5 ~ 9. 14	본원 세심당	22명	
2005주부실버정보화 경진대회	10. 28 ~ 11.1(예선) 11.17(본선)	사이버경연 충남인력개발원	500명	
혼인귀화 여성농업인 축제	2005. 11.2		350명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2005.11.30		24명	